



바른답 알찬풀이

1 / 경험의 발견과 공감

(1) 년 바보다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6~7

핵심개념 1 경험, 열거, 운율, 반어
핵심개념 2 반어, 운율, 간접적, 웃음
핵심개념 3 나, 본받고, 긍정적
핵심개념 4 부정적, 반어 / 반대 / 강조
핵심개념 5 바보, 문장 / 강조
핵심개념 6 두꺼비, 풍자 / 비판 의식
핵심개념 7 글자 수, 음보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8~9

01 ㉓ 02 ㉓ 03 ㉓ 04 ㉓ 05 ㉓: '너는 참 바보다.'
 ㉓: 반복, ㉓: 강조 06 ㉓ 07 ㉓ 08 ㉓, ㉓ 09 ㉓: 파리,
 ㉓: 두꺼비, ㉓: 백송골 10 ㉓

- 01 이 시의 1연에는 화자가 관찰한 대상인 '너'의 정직하고 따뜻하며 착하고 바른 행동들이 드러나 있다.
- 02 이 시의 2연을 통해 '나'가 '너'를 좋아하며 줄줄 따라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가 '너'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은 이 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 03 꽃을 꺾으려는 친구들을 말리는 장면이 아니라 길바닥에 피어 있는 보잘것없는 흔한 꽃인 민들레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 바라보는 장면이 적절하다.
- 04 ㉓은 '나'의 속마음을 반대되게 표현한 반어 표현이다. <보기>의 ㉓(잘못 건 112 신고 전화 긴급 출동의 발목을 잡습니다.)는 공공 기관에 장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으로, 이를 반어 표현으로 적절하게 바꾼 것은 허위 신고를 고맙다고 하고 허위 신고 덕분에 번개처럼 출동한다고 표현한 ㉓이다.
- 05 이 시에서는 '정말', '바보' 등의 단어와 '너는 참 바보다.'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 06 이 시조에서는 중장과 종장을 '-구나'로 끝맺을 뿐, 의문형으로 끝맺는 문장은 사용되지 않았다.
- 07 이 시의 종장은 백송골을 발견하고 무서워서 뛰어 내달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진 '두꺼비'가 자신의 몸이 날래기에 다치지 않았다며 허세를 부리는 내용으로, ㉓의 '나'는 두꺼비를 가리킨다.
- 08 이 시조는 '두꺼비'와 '파리'를 물고'와 '두엄' 위에'치달아

앉아'와 같이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고, 3~5자의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9 이 시조에서는 힘없는 백성은 '파리'에,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는 '두꺼비'에, '두꺼비'가 꼼짝 못하는 힘 있는 권력자는 '백송골'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10 '파리(백성), 두꺼비(탐관오리, 지방 관리), 백송골(더 힘이 있는 권력자, 중앙 관리)'로 대표되는 세 계층을 통해 사회의 계층 구조와 비리를 풍자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황포를 일삼고 자신보다 강한 자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두꺼비'의 모습을 통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2) 나의 모국어는 침묵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10~11

핵심개념 1 경험, 형식, 제재, 가치관
핵심개념 2 의미, 구체적, 구성, 방법, 문학적, 표현
핵심개념 3 모순, 참신, 인상적
핵심개념 4 대화, 반응, 전통, 흥내, 거만, 존재, 이름, 말
핵심개념 5 모국어, 모순, 상대방 / 이해, 강조, 인상적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12~13

01 ㉓ 02 ㉓ 03 ㉓ 04 ㉓ 05 침묵은 흥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06 ㉓ 07 너무 많이 말해 08 ㉓ 09 ㉓

- 01 이 글은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느끼고 생각한 것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수필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이다.
- 02 이 글은 글쓴이가 실제 경험한 일과 이를 통해 깨달은 점, 느낀 점 등을 독백체 형식으로 쓴 글이다.
- 03 (가)에서 글쓴이는 인디언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그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으나 인디언들은 글쓴이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 04 글쓴이는 인디언들의 침묵에 그들이 자신을 불청객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짐작했으나, 훗날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 05 글쓴이는 미국에서 돌아와 인디언들의 침묵을 흥내였으나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침묵은 흥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 06 인디언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침묵이 상대방을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다.
- 07 글쓴이는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통해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하고 있으므로 이 이름에 인디언들에 비해 말을 많이 하는 '나'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08 '모국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인데, '침묵'은 아무 말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은 말보다는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을 역설 표현이라 한다. 그러나 ㉡는 반어 표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9 역설 표현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을 말한다. 따라서 책을 읽는 곳인 도서관을 '책을 읽지 않는' 곳이라고 함으로써 모순되게 표현한 ㉠이 역설 표현을 활용한 것이다.

(3) 공감하며 대화하기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14~16

- 핵심개념 1 이해, 소통 / 인간, 유대감
- 핵심개념 2 상처, 대화 / 공감
- 핵심개념 3 집중, 맞장구, 격려, 재진술, 재구성, 공유
- 핵심개념 4 공손, 처지, 관점, 비언어적
- 핵심개념 5 과제를, 강요, 대화, 배려, 가치관 / 사과, 존중, 공감대, 부탁, 입장
- 핵심개념 6 표정, 눈, 고개 / 분위기, 진술, 공감, 조언
- 핵심개념 7 관심, 재진술, 공유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17~21

01 ④ 02 ④ 03 ③, ⑤ 04 ① 05 ⑤ 06 ① 07 ㄴ, ㄷ
 08 이해, 처지 09 ⑤ 10 ⑤ 11 ②, ③ 12 ① 13 ㉠, ㉡, ㉢: ㉣, ㉤: ㉥, ㉦: ㉧ 14 ② 15 ④ 16 ④ 17 ①, ③ 18 ⑤
 19 ④ 20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다.
 21 ② 22 ②

- 01 (가)에서 민아는 과제를 대신 해 준다는 엄마에게 '아냐, 내가…….'라고 하였으므로 엄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발표회 준비물을 만들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 02 엄마는 민아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민아가 하던

발표회 준비를 하지 못 하게 하며 공부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는 엄마의 대화 태도는 민아와의 대화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 03 민아는 엄마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화를 내고 있다.
- 04 민아와 민아 엄마는 상대의 처지와 생각, 감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행동하여 갈등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에게서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며 말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 05 다은이가 민아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이는 민아의 고민보다 심각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여 민아의 고민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민아의 고민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 06 민아는 다은이에게 엄마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털어 놓고 있다. 그러므로 ㉠의 말줄임표 부분에는 엄마가 잘해 주는 건 고맙지만 그 관심과 간섭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 07 민아는 다은이가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 주고, 진심으로 이해하며 조언해 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안심이 되었을 것이다.
- 08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고 느껴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09 민아 엄마는 뭐든 좋은 거에 최고로만 해 주고 싶었던 자신의 행동을 민아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 10 다은 엄마는 민아 엄마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민아 엄마의 심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대화하고 있다.
- 11 민아 엄마는 다은 엄마와 대화를 하며 자신의 처지를 공감하고 배려해 주는 다은 엄마에게 위로를 받았을 것이며, 다은 엄마의 조언을 통해 민아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할 것이다.
- 12 민아 엄마가 자신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대방(다은 엄마)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하는 말이므로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13 '알지. 민아 유산할 뻔해서 ~ 민아 엄마(㉠).'는 다은 엄마가 민아 엄마의 말에 집중하는 반응을 보이는 '관심 표현하기(㉠)'이고, '민아 엄마는 민아를 사랑해서 ~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는 민아 엄마의 마음을 자신의 말로 다시 진술한 '재진술하기(㉡)'이다. 또, '사람 마음이란 게 ~ 사회가 만만하지 않으니

까(㉔).’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여 공감을 형성하는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㉔)’이다.

- 14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이다.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통해 대화 상대방과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5 민아는 다음부터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엄마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였고, 발표회 준비물 만들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16 민아와 민아 엄마는 서로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상대방의 말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며 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하지는 않았다.
- 17 민아 엄마가 자신도 어릴 때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한 까닭은, 비슷한 경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아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이다.
- 18 민아는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겠다고 하였고, 민아 엄마는 그런 민아를 존중해 주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민아가 말하기 전에 민아 엄마가 민아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려고 노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9 ㉔는 ‘상대방의 말에 관심 표현하기’, ㉔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기’, ㉔는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이다. 하지만 ㉔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공감하는 대화와 거리가 멀다.
- 20 형진이는 경훈이가 말을 거는 상황에도 자신이 하던 게임을 멈추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1 송이가 친구인 유정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유정이가 자신의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 22 (나)에서 형진이는 상을 받아 축하를 받고 싶은 경훈이의 마음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다. (다)에서 유정이는 상대방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말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충고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태도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며 반응하는 것이다.

01 ㉔ 02 ㉔ 03 ① 04 너는 참 좋은 아이다. 05 ① 06 ① 07 더 힘이 있는 권력자 08 잘난 척하며 허세를 부린다. 09 ③ 10 ② 11 ㉔ 12 축제에서 만난 인디언들이 글쓴이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13 ③ 14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이다. 15 ㉔ 16 글쓴이의 침묵은 흥내를 낸 것이지만 인디언의 침묵은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온 것이다. 17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다. 18 ㉔ 19 ③ 20 ㉔ 21 ③ 22 형진이에게 칭찬과 축하를 기대했다. 23 ② 24 ① 25 송이는 유정이가 자신의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기대했으나, 유정이는 송이에게 공감해 주지 않고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충고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26 ㉔ 27 ㉔ 28 상대방의 말에 관심 표현하기 29 다른 친구들은 하나씩 잘하는 게 있는데 너만 특기가 없는 것같이 느껴져 속상했구나. 30 ①

- 01 (가)에는 대상(‘너’)에 대한 장점만 제시되었을 뿐, 단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나)의 경우 대상(두꺼비)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풍자, 비판하고 있을 뿐, 장단점을 나열하지 않았다.
- 02 (가)에는 한결같이 착하고 고운 마음을 가진 ‘너’의 바른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런 ‘너’를 닮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나’의 마음이 드러나 있을 뿐, ‘너’와 ‘나’의 성격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 03 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에 버리고, 금방 갈 수 있는 개구멍을 두고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모습에서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㉔)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눈물을 흘리고, 길가의 작은 꽃에도 관심을 가지는 모습에서 착하고 순수한 모습(㉔)을 확인할 수 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강인한 모습(㉔), 눈치 없거나 이용당하는 모습(㉔), 알뜰하고 검소한 모습(㉔)은 나타나지 않는다.
- 04 ‘너’의 모범적인 행동을 나열하면서도 ‘너는 참 바보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바르고 마음이 고운 아이이며, 닮고 싶은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 표현이다.
- 05 (가)에서는 너의 모범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속마음과 반대로 ‘너는 참 바보다.’라고 하는 반어 표현이 사용되었다. ① 역시 사랑하는 입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슬프지만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다.
- 06 ‘두꺼비’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희화화한 것은 조롱하고 비웃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연민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② ‘두꺼비V파리를 물고V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와 같이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고, 3~5자의 글자 수를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백성을 '파리'에, 탐관오리를 '두꺼비'에 빗대어 탐관오리의 횡포를 은근히 비판한다. ④ 탐관오리인 '두꺼비'가 힘없는 백성인 '파리'를 입에 물고 괴롭히면서도 자신보다 권력이 센 '백송골'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⑤ '파리' < '두꺼비' < '백송골'의 순서로 나타나는 동물들의 권력 구조를 통해 신분에 따른 권력 구조를 우의적으로 보여 준다.

- 07 <보기>에서는 이 시조가 창작된 조선 후기에는 탐관오리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면서도 자신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아첨하거나 뇌물을 바쳤다고 하였다. '두꺼비'는 탐관오리를 나타내므로, '두꺼비'가 두려워하는 '백송골'은 탐관오리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자'임을 알 수 있다.
- 08 백송골이 두려워 두엄에서 뛰어 내닫다가 자빠졌으면서도 자신이 날래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 '두꺼비'의 모습에서 잘난 척하고 허세를 부리는 특성을 알 수 있다.
- 09 (나)에는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허세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이들을 비판하는 풍자 표현이 사용되었다. <보기>는 전화를 건 남자의 수화기를 긴급 출동하는 경찰관의 발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현실에서 허위 신고가 긴급 출동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
- 10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이 나타나는 수필이다. 글쓴이가 내세운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며 읽는 것은 논설문을 감상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 11 글쓴이는 인디언들과의 첫 만남에서 그들이 침묵하는 의도를 알지 못하고, 훗날에야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임을 알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가 인디언들과의 첫 만남에서 인디언 부족의 전통을 흉내 내며 침묵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2 글쓴이는 인디언 축제에 참가하며 인디언들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으나 인디언들로부터 침묵의 응대를 받게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인디언들이 글쓴이에게 보인 태도가 드러나게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인디언들이 글쓴이에게 보인 태도를 언급했으나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 13 글쓴이는 인디언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자신을 소개하였다.
- 14 글쓴이는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과 만났으나 인디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험을 바탕으로 침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채점 기준	배점
'말'과 '침묵'이란 단어를 포함하여 인디언 부족의 전통과 관련지어 썼을 때	4
'말'과 '침묵'이란 단어만 포함했을 뿐 인디언 부족의 전통과 관련성이 떨어질 때	2

- 15 이 글에는 글쓴이가 인디언들에게 받은 인디언식 이름 두 개 가운데 '너무 많이 말해'만 언급되었다. 다만 글쓴이는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이름에 불만을 품고 따졌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라는 이름을 얻게 될까 봐 그러지 못했다고 하였다.
- 16 글쓴이는 미국에서 돌아와 인디언들의 침묵을 흉내 내다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침묵이 인디언들을 흉내 내는 것에 불과했으며 침묵은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다.

채점 기준	배점
글쓴이의 침묵과 인디언의 침묵을 비교하여 주어진 문장 형식에 따라 썼을 때	4
글쓴이의 침묵과 인디언의 침묵을 비교했으나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게 쓰지 않았을 때	2

- 17 글쓴이는 인디언들에게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은 것을 계기로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다.
- 18 ㉠은 '말'인 모국어와 '침묵'을 연결하여 모순되게 표현한 역설 표현이다. (㉡)의 '버려야 얻는다.', (㉢)의 '바쁠수록 돌아가라.', (㉣)의 '가깝고도 멀다.'는 모두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나 그 안에 진실이 담긴 역설 표현이다. (㉠)과 (㉡)은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반어 표현이다.
- 19 ㉤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표현이다. 이를 역설 표현을 활용하여 바꾸어 쓰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여 전달할 수 있다.
- 20 (가)에서는 민아와 민아 엄마가 서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여 갈등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공감하며 대화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갈등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21 (가)에서 민아 엄마가 민아의 과제물을 대신하려고 한 것은 민아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또한 (나)에서 엄마가 어릴 때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한 것은 민아와 공감대를 마련하여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함이다.
- 22 경훈이가 형진이에게 교내 발표 대회에서 상을 받은 이야기를 한 것은 형진이에게 칭찬과 축하를 받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이다. 그런데 형진이는 이런 경훈이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

로 이야기하고 있다.

- 23** (다)에서 형진이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이 잘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경훈이의 약점을 들추어 비난하지는 않았다.
- 24** <보기>에서 다른 엄마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고 있다. ① 역시 송이의 감정을 헤아리며 송이의 말을 재진술하고 있다.
- 25** 송이는 고민을 털어놓으며 유정에게 공감과 위로를 기대했으나 유정은 송이의 처지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충고하려고 하여 송이의 기분이 상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송이가 유정에게 기대한 바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정의 대화 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을 때	4
송이가 유정에게 기대한 바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유정의 대화 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을 때	2

- 26** (나)에서 다른 엄마는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가)의 다른 엄마는 상대방의 생각을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는 대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 27** (가), (나)에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공감하며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의 문제를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28** (나)에서 다른 엄마는 ‘다른 엄마도 알지?’라고 묻는 민아 엄마의 말에 ‘알지.’라고 맞장구를 치며 집중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중 ‘관심 표현하기’에 해당한다.
- 29** ㉠에서 다른 엄마는 민아 엄마의 말을 재진술하는 방법으로 공감하며 대화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에 나타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화체로 썼을 때	4
㉠에 나타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을 활용하지 않거나 대화체로 쓰지 않았을 때	2

- 30** 뒤에 이어지는 다른 엄마의 말을 통해 ㉡에 들어갈 속담을 추측할 수 있다. ㉡에는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만 자라서는 제 뜻대로 행동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똥 안의 자식’이라는 속담이 들어가야 한다. ②는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매를 대어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말, ③은 가난한 집에는 먹고 살아 나갈 걱정이 큰데 자식까지 많다는 뜻으로, 이래저래 부담되는 것이 많음을 이르는 말, ④는 자기 자식은 못생겨도 잘나 보이는 부모의 애정을 이르는 말, ⑤는 자식은 자기 자식이 잘나 보이고 재물은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 탐이 남을 이르는 말이다.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6** ⑤ **07** 비판 대상을 에둘러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08** ④ **09** ② **10** ① **11** 침묵은 흥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12** ⑤ **13** ⑤ **14**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다. **15** ③ **16** ④ **17** ④ **18** ⑤ **19** ⑤ **20** ⑤ **21** ⑤ **22** ① **23** 유정이가 자신의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24** ② **25** 상대방의 처지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지 않고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충고하려고 한다. **26** ③ **27** ④ **28** ③ **29** ② **30** ①

- 01** (가)에는 ‘너’라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지만, (나)에서는 ‘두꺼비’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다.
- 02** ㉡에는 친구들이 ‘바보’라고 불려도 웃어넘기는 밝고 수더분한 ‘너’의 성격이 드러난다.
- 03** ㉢는 ‘너’가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아이라는 점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 표현인데, ㄷ은 역설 표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4** (가)에서는 ‘정말, 바보, 너는 참 바보다’ 등 같은 말이나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5** 두꺼비는 힘없는 파리를 괴롭히면서도 백송골 앞에서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두꺼비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 06** <보기>를 통해 (나)의 시조는 탐관오리들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백성들이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 07** (나)와 (다)는 모두 풍자 표현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여 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주제 전달과 관련 지어 풍자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바르게 썼을 때	4
풍자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설명하였지만 주제 전달의 측면에서 설명하지 못했을 때	2

- 08**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그로 인한 깨달음이 담긴 수필이다. 현실에 있음직한 이야기를 꾸며 쓴 것은 소설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9** 글쓴이가 인디언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자신을 불청객으로 여겨서일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지 인디언들이 실제로 글쓴이를 불청객으로 여긴 것이 아니다.
- 10** 인디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낀다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 앞에 있는 존

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이 '말'이 아닌 '침묵'임을 깨닫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11 글쓴이는 미국에서 돌아와 무척대고 인디언들을 흉내 내다가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고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 12 (가)에서 글쓴이는 인디언들의 세계에 끌려 머리를 땅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니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인디언의 문화에 애정을 갖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① 글쓴이는 인디언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글쓴이는 인디언들에 비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언어 습관으로 인해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게 되었다. ③ 인디언 문화의 장단점에 대한 글쓴이의 객관적 평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글쓴이가 인디언들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13 (나)에서 인디언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예의로 알고 있다는 것과 슬픈 일이 닥쳤을 때도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볼 때, 이를 적용하여 슬픔을 겪고 있는 친구를 말없이 바라보고 함께 슬픔을 느껴야 한다는 ⑤가 적절하다.
- 14 글쓴이는 인디언들에게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고 불만을 갖는 한편,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하며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채점 기준	배점
①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한 글쓴이의 깨달음이 잘 드러나게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①의 이름에 담긴 의미나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한 글쓴이의 깨달음 중 한 가지만 서술했거나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 15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가 깊은 것으로,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 16 ㉔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인 '모국어'를 아무 말이 없는 상태인 '침묵'이라고 모순되게 표현하여 그 안에 말보다 침묵이 상대를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④에는 역설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 17 역설 표현은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으로, 이를 통해 전하려는 의미를 참신하고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④는 풍자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 18 (가)에서 민아와 엄마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으나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 19 <보기>의 대화에서 형진이는 자신의 경험을 경훈이에게 들려주지 않았다.
- 20 (가)의 민아와 민아 엄마, 그리고 (나)의 형진이와 경훈이 사이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인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1 다은이는 민아 엄마가 아닌 민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 22 민아는 엄마가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신의 일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에 속상해한다. 이러한 민아의 입장과 처지에 공감하면서 민아의 심정을 헤아려 반응한 것은 ①이다. ②, ③ 갈등의 원인이 적절하지 않다. ④ 민아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반응하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⑤ 민아는 엄마가 냉정하고 쌀쌀맞게 대해 속상한 것이 아니다.
- 23 송이는 유정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유정이 자신의 고민에 공감해 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 24 '우리 반 몇몇 친구들이 날 불편해하는 것 같아. 은근히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라는 말을 통해 송이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25 유정이는 송이의 고민을 송이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며 이야기했고, 송이의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충고하려고만 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나)의 대화에서 유정이가 송이에게 공감하지 못한 점을 찾아 제시된 단어(처지, 관점, 분석, 태도)를 모두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나)의 대화에서 유정이가 송이에게 공감하지 못한 점을 찾아 썼으나 제시된 단어 중 일부만 포함하였거나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 26 공감하며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들어야 한다.
- 27 다은 엄마는 민아 엄마와 공감하며 대화하고 있으며, 민아 엄마의 문제점을 비판하지 않았다.
- 28 다은 엄마는 민아 엄마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는 대화를 하고 있으며, '품 안의 자식'이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민아 엄마에게 조언하고 있다.
- 29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 중 ㉠와 ㉡는 '상대방의 말에 관심 표현하기'이며, ㉢과 ㉣는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이다. ㉤은 '재진술하기'의 방법이다.
- 30 ㉦는 엄마가 민아와 공감대를 마련해 민아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

2 / 읽고 쓰는 즐거움

(1) 과학자의 서재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36~37

- 핵심개념 1 공감, 즐거움, 지적 호기심, 상상력, 정서, 가치관
- 핵심개념 2 독서량, 시간, 태도, 방법, 경험
- 핵심개념 3 계획, 목적, 종류, 양질
- 핵심개념 4 재미, 사진, 창의적, 시인, 호기심, 사회 생물학, 사회 생물학 / 진로
- 핵심개념 5 다양한, 통섭형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38~41

- 01 ② 02 ④ 03 ⑤ 04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선사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05 ④ 06 ③ 07 ⑤ 08 ④ 09 문학적 감수성, 지적인 호기심 10 ③ 11 ① 12 ⑤ 13 이타주의 14 ⑤ 15 ③

- 01 이 글의 갈래는 수필로, 글쓴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읽기가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요즘 아이들의 생활을 안타까워하며 여유 있는 시간과 그 시간을 통한 읽기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삶의 방식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02 ‘나’는 초등학교 4학년쯤에 빈둥거리다가 우연히 백과사전을 접하게 되었고, 백과사전을 읽으며 처음으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 03 (가)에서 글쓴이는 ‘그 책이 언제 어떻게 해서 책꽂이에 꽂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글쓴이가 책꽂이에 백과사전을 꽂아 두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4 (나)에서 글쓴이는 백과사전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사진을 통해 처음 본 동물들이 호기심을 마구 자극했다고 하였다.
- 05 글쓴이는 세계 동화 전집은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과 시인을 꿈꾸는 감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노벨 문학상 작품들은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 등 여러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 주었다고 하였다.
- 06 (가)에서 세계 동화 전집을 읽은 후로 자연 속에서 맘껏 뛰어놀고 싶어 방학만 기다렸던 글쓴이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하였으므로, ③은 글쓴이가 겪은 변화로 적절하지 않다.
- 07 ㉠은 동화 속에 그려진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의 모습을 접하고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08 (가)에서 글쓴이는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울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나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져서 색다른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보다.’라고 하였다.
- 09 (나)에서 글쓴이는 노벨 문학상 작품들을 읽으면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랐기 때문에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 10 글쓴이는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을 읽고 생긴 수수께끼를 사회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대답해 주었으며, 개미들을 이해하게 된 순간 사회 생물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문학 작품과 과학을 접목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게 된 글쓴이의 경험에 해당하므로 소재목은 ③이 적절하다.
- 11 (가)에서 <모닥불과 개미>는 솔제니친의 소설이 담긴 책의 뒷부분에 실린 반 쪽짜리 짧은 수필이라고 하였다.
- 12 글쓴이는 (나)의 글을 읽고 솔제니친과 마찬가지로 개미가 불이 붙은 통나무를 떠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불에 타 죽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13 (마)에서 사회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타주의이며, 이는 인간 사회에도 있고 동물 세계에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 14 (마)에서 글쓴이는 개미를 통해 이타주의를 발견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미가 불타고 있는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며 그대로 죽어 간 것은 모두가 모여 사는 집을 구하기 위한 이타주의적 희생이라고 볼 수 있다.
- 15 글쓴이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과학자이면서 대단한 독서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과학자이면서도 전공 분야 외에도 문학, 철학, 역사, 사회 과학, 심리학 등 인문학적 안목을 넓히는 독서를 해 왔으며 이러한 자신만의 독서 특징을 ‘다양성’이라고 하였다.

(2) 민재의 독서 일기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42~43

- 핵심개념 1 생활화, 정기적, 독서 동아리
- 핵심개념 2 시간, 독서 동아리, 독서 기행, 독서 신문 / 이해, 흥미, 습관
- 핵심개념 3 관용 표현, 속담, 인생, 참신한
- 핵심개념 4 첫발, 길, 자루, 송곳, 꿈, 서재, 꿈, 우물, 반대
- 핵심개념 5 공든 탑, 정성, 길, 방향
- 핵심개념 6 관심, 기억, 언어

- 01 ④ 02 ⑤ 03 ③ 04 ⑤ 05 ① 06 이는 만큼 보인다. 07 ③ 08 마음 09 ① 10 ④ 11 ④ 12 ①, ⑤ 13 자루 속의 송곳 14 ⑤ 15 ① 16 ④ 17 두꺼운, 자신 18 ① 19 ④

- 01 (나)에서 독서 동아리 회장인 3학년 누나가 일 년 동안의 동아리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였다.
- 02 (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는 아침 독서 활동, (나)에서는 독서 토론, 서점과 도서관 방문 등을 하는 독서 동아리 활동, (다)에서는 독서 기행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 03 국어 선생님께서는 아침 독서 시간에 8시 30분부터 20분 동안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침 독서 시간에 책을 읽은 후 독후감을 써서 선생님께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04 ㉠(독서 동아리)에서는 일 년 동안 독서 토론, 서점과 공공 도서관 방문, 독서 기행, 독서 캠프, 나만의 책 쓰기 등의 활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독서 신문 만들기'는 독서 동아리의 활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 05 민재는 독서 기행을 하면서 <소나기>를 한층 더 깊이 감상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소나기>를 다시 한 번 읽어 봐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 06 민재는 <소나기>를 읽고 그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소나기 마을로 독서 기행을 가게 되어 여행지에서 더욱 뜻깊은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독서 기행을 마친 후 "이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하였다.
- 07 (가)의 '국어 시간에 한 권의 책을 읽고 모둠별로 독서 신문을 만들었다.'와 '우리 모듬은 책 《과학자의 서재》를 함께 읽고 독서 신문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민재네 받은 모듬별로 다른 책을 정해 한 권씩 읽고 독서 신문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 08 마음이는 참신한 표현을 써서 《과학자의 서재》에 대한 책 광고를 만들었다.
- 09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일을 너무 벌여 놓거나 하던 일을 자주 바꾸어 하면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 어떠한 일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은 원래 속담이 가진 의미를 반대로 활용하여 여러 분야에 도전해 볼 것을 충고하는 말이다.
- 10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는 뜻의 속담은 '시작한 일은 끝을 보라'이다. 속담 '시작이 반이다'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11 중호는 6행시의 1행에서 '과학자가 꿈이 아니어도 좋

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과학자의 서재》가 과학자가 꿈인 친구들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볼 수 없다.

- 12 ①은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라는 속담을 반대로 표현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의미를 참신하게 전달한 표현이고, ⑤는 읽은 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재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여 책의 내용을 잘 드러낸 참신한 표현이다.
- 13 '자루 속의 송곳'은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숨길 수 없고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 14 민재네 모듬은 독서 신문을 만들면서 관용 표현, 속담, 격언과 명언, 참신한 표현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 생각과 느낌, 경험을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15 '관용 표현'이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말로, '발을 꿰다'는 '오가지 않거나 관계를 끊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 16 [A]에서는 민재네 모듬원들이 며칠 동안 고민하여 만들어 낸 독서 신문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 17 (다)에서 민재는 마음이에게 《개미》를 함께 읽자고 하면서,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읽을 자신이 생겼다고 말하였다.
- 18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해법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기>의 느낌을 표현한 격언이나 명언으로는 '책 속에 길이 있다.'가 가장 적절하다.
- 19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 말하려는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01 ③ 02 ④ 03 《사랑의 학교》 04 ① 05 ②, ③ 06 ③ 07 ① 08 ⑤ 09 ④ 10 ③ 11 ① 12 ② 13 ③ 14 글쓴이가 가지고 있던 의문인 <모닥불과 개미> 속 개미의 행동을 사회 생물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5 ④ 16 ③ 17 ④ 18 ⑤ 19 ⑤ 20 자루 속의 송곳 21 시작이 반 / 민재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뜻하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두꺼운 책도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22 ① 23 ②

- 01 글쓴이는 빈둥거리는 것이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보내기를 못 하는 요즘 아이들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책 읽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지는 않았다.
- 02 글쓴이는 백과사전의 장점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필요 없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 03 (나)에서 글쓴이는 누군가가 어렸을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화가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사랑의 학교》라고 대답했다고 말하며, '우정, 사랑, 정의' 등의 주제를 감동하면서 깨닫게 해 주는 책이라고 하였다.
- 04 글쓴이는 '빈둥거리는 것 역시 필요하고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라고 밝히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보내기를 못 하는 요즘 아이들을 안타까워하였다.
- 05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는 '좋은 책은 언제 읽어도 그때그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하였다.
- 06 이 글에서 글쓴이는 여러 종류의 책을 통해 지식과 감성을 채우다가 전집에 실린 한 작품이 훗날 전공 학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 07 (가)에서 글쓴이는 백과사전을 읽으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다고 하였으며,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자신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했다고 하였다.
- 08 <보기>의 '그가 20년 넘게 신문에 글을 연재하고 대중적 과학자로 자리매김한 데 독서가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을 통해 독서가 그의 현재 위치에 밑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글을 통해 그러한 독서의 뿌리가 그의 어린 시절 독서 경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09 글쓴이가 세계 동화 전집을 읽고 난 후 또래의 아이들과 뛰노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 10 이 글의 '그 전집에 실린 한 작품이 훗날 내가 동물 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하는 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와 <보기>의 '책들이 나의 길을 열어 주었네.'라는 부분을 통해 글쓴이가 '노벨상 문학 전집'에 실린 작품에 영향을 받아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1 솔제니친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암 병동》 등의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짧은 수필인 <모닥불과 개미>는 책 뒷부분에 실린 것이라고 하였다.
- 12 (다)에서 글쓴이는 솔제니친과 마찬가지로 개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했다고 하였으므로 개미

가 불을 피해 도망가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 ②가 적절하다.

- 13 죽을 것이 뻔한데도 불타고 있는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며 죽어 가는 개미의 행동은 모여 사는 집을 구하기 위한 희생으로, <보기>에 의하면 이러한 개미의 행동은 이타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 14 (다)에서 글쓴이는 사회 생물학이 그동안 품고 있던 수수께끼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대답해 주었다고 하며, 그러한 수수께끼 중 하나였던 개미들의 행동을 사회 생물학을 통해 이해하게 되면서 사회 생물학을 평생 공부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였다.
- 15 (가)에서 민재가 하게 된 활동은 아침 시간을 활용해 8시 30분부터 20분 동안 독서를 하는 것이다. 이는 시간을 정해 놓고 책을 읽는 활동이므로, 읽고 싶을 때마다 책을 읽는 ④와는 성격이 다르다.
- 16 <보기>에서는 책을 읽고 그 책과 관련된 장소에 가서 책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으로, 이는 (다)의 독서 기행과 관련된 활동이다.
- 17 민재는 소나기 마을로 독서 기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작품에 나온 대로 소나기를 피하는 소년과 소녀의 모습을 흉내 내거나 송아지를 탄 소년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소녀를 업고 개울을 건너는 소년의 모습을 재연하는 등의 체험을 하였다. 그러나 <소나기>의 내용을 새롭게 바꾸는 활동은 하지 않았다.
- 18 (다)에서 '교내 독서 동아리 연합 독서 기행을 다녀왔다.'를 통해 교내에는 독서 동아리가 두 개 이상 있음을 알 수 있다.
- 19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다.
- 20 <보기>에는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숨길 수 없고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자루 속의 송곳'이 사용되었다.
- 21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읽을 자신이 생겼어.'라는 민재의 말로 볼 때,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독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㉔에 들어갈 속담의 뜻을 포함하여 썼을 때	5
㉔에 들어갈 속담의 뜻을 포함하지 않고 썼을 때	2

- 22 ④는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①의 '갈수록 태산'과 같은 의미를 가진 속담이다.
- 23 독서 활동을 통해 책을 더 빠르게 읽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01 ① 02 ⑤ 03 ② 04 ⑤ 05 ③ 06 ④ 07 자연, 색깔, 생각, 시인 08 ② 09 ① 10 ④ 11 ② 12 ㄷ 13 ⑤ 14 ⑤ 15 ③ 16 ① 17 다양성, 글쓰이는 사회 생물학이라는 과학을 전공하였지만 문학과 같은 인문학적 독서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다양한 관심사에 따라 그의 독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18 ③ 19 ② 20 ①, ② 21 ⑤ 22 ② 23 ④ 24 ④ 25 ④ 26 ② 27 ①

- 01 이 글은 글쓰이가 어린 시절에 백과사전, 세계 동화 전집 등을 읽으면서 받았던 감동과 경험을 서술할 수 필요하다.
- 02 (가)에서 글쓰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 낼 발을 일구는 것'이라고 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혼자 빈둥거리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 03 ①은 책이 너털너털해지도록 열심히 읽었음을 표현한 문장이다. '위편삼절(韋編三絶)'은 '책의 가죽끈이 세 번이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책을 읽음.'을 이르는 한자 성어이다. ①의 '주경야독(晝耕夜讀)'은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라는 뜻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의 '문일지십(聞一知十)'은 '하나를 듣고 열 가지를 미루어 안다.'라는 뜻으로, 지극히 총명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의 '등화가친(燈火可親)'은 '등불을 가까이할 만하다.'라는 뜻으로, 서늘한 가을밤은 등불을 가까이 하여 글 읽기에 좋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의 '박학다식(博學多識)'은 '학식이 넓고 아는 것이 많다.'라는 뜻이다.
- 04 (나)에서 백과사전은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거리가 그득했다.'라고 하였으며, (다)에서 '백과사전의 장점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필요 없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 05 《사랑의 학교》를 지은 사람은 에드먼도 데아미치스이고 그가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렸는지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없다. 참고로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는 사람은 솔제니친으로, <모닥불과 개미> 등을 지은 작가이다.
- 06 (나)에서 글쓰이는 세계 동화 전집을 읽고 난 후에는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졌다고 하였다.
- 07 (나)를 통해 글쓰이는 세계 동화 전집을 읽고 난 후,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지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갔으며, 또래들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 동화 전집을 읽은 덕분에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 08 (나)에서 글쓰이는 또래들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 것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과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진 것도 세계 동화 전집 덕분이라고 하였으므로, 빈칸에는 '사유'와 '상상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9 글쓰이가 빈둥거리다가 백과사전을 발견한 뒤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다는 내용이 잘 드러난 제목은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이다.
- 10 (가)에서 글쓰이는 백과사전을 읽으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다고 하였으며,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글쓰이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했다고 하였다.
- 11 글쓰이는 세계 동화 전집을 읽고 난 후 '학교생활을 할 때는 물론이고, 뛰놀 곳 친지인 시골에서도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였다.
- 12 (다)에서 글쓰이는 '그전까지의 책 읽기가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충족해 주었다면 노벨 문학상 전집은 그와 더불어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 주었다.'라고 하였다.
- 13 글쓰이는 <모닥불과 개미>라는 반 쪽짜리 짧은 수필이 머릿속에 이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길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하였으며, <모닥불과 개미> 속 개미의 행동을 사회 생물학을 통해 이해하게 된 순간 사회 생물학을 평생 공부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하였다.
- 14 불에 타 죽을 것이 뻔한데도 타오르는 통나무를 붙잡고 죽어 가는 개미의 행동은 자신들이 모여 사는 집을 구하기 위한 희생으로, 이타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 15 ㉠은 '사회 생물학'을 의미하며, 솔제니친이 사회 생물학에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 16 이 글에는 글쓰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이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 17 <보기>를 통해 글쓰이는 진화 생물학자이지만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글쓰이의 전공이 무엇인지 포함하여 두 문장으로 썼을 때	5
글쓰이의 전공이 무엇인지 포함하지 않았거나 두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 18 이 글은 민재가 독서에 관하여 겪은 일이나 그에 대한 생각을 일기 형식으로 쓴 독서 일기이다. 일기는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기분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이다.
- 19 마음이가 《갈매기의 꿈》 이야기를 할 때 민재가 부끄러웠다고 한 것을 통해 그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 20 ㉠과 같은 다양한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책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더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은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책 읽기에 재미를 느껴 책을 더 가까이할 수 있게 한다.
- 21 (다)에서 민재는 《개미 제국의 발견》을 다 읽고 나면 마음이가 가까운 자연사 박물관에 가 봐야겠다고 다짐하였을 뿐, 자연사 박물관에 가는 활동이 독서 동아리 활동으로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 22 ㉡은 '대상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어야 그 대상을 보고 가치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명언이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의미이므로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23 (가)의 독서 신문에서 중호는 관용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차루 속의 송곳'이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6행시를 지었다.
- 24 ㄱ, ㄴ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말인 관용 표현이고, ㄷ, ㄹ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생활에서 얻은 생각과 교훈을 담고 있는 속담이다.
- 25 (가)에서 민재가 쓴 독서 감상문의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글쓴이 또한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라는 내용과 '백과사전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작까지 다양한 책을 읽은 결과 지금의 글쓰기가 있는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과학자의 서재》의 글쓰기가 어릴 때부터 생물학자가 되고자 백과사전을 탐독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26 민재네 모둠의 독서 신문에서는 《과학자의 서재》에 대한 모둠원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감상문, 만화, 광고, 6행시 등 다양한 형식과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 27 빈칸에는 정성을 다한 결과물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는 뜻의 속담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공든 탑이 무너지랴'가 적절하다.

3 / 소통하는 우리

(1)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62~63

- 핵심개념 1** 계획, 주제, 목적, 정보 / 선정, 원인, 관리 방법, 주제, 출처 / 구성, 핵심 정보, 경험, 원인, 관리 방법, 매체 자료 / 예절, 준언어, 비언어, 청중
- 핵심개념 2** 주제, 순서, 주제, 요약, 매체 자료
- 핵심개념 3** 보완, 시각, 청각, 시청각 / 주의, 기억
- 핵심개념 4** 주제, 흥미, 이해, 청중, 예절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64~67

- 01 ③ 02 ① 03 ④ 04 ② 05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여 주기에 적합한 매체 자료는 ㉡의 도표로,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보여 주어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06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07 ① 08 ⑤ 09 ⑤ 10 ③ 11 ① 12 ⑤ 13 ④ 14 ② 15 ㉢은 준언어적 표현으로 청중의 주의를 끌고,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16 ④ 17 ④

- 01 (가)는 예상 청중의 관심사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발표 주제를 정하는 '발표 계획하기(ㄴ)', (나)는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사하고 선정하는 '발표 내용 선정하기(ㄷ)', (다)는 도입 - 전개 - 정리 단계에 맞게 발표할 내용을 구성하는 '발표 내용 구성하기(ㄹ)'에 해당한다.
- 02 (가)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정하는 '발표 계획하기'이다. 발표할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발표 내용 선정하기'에 해당하는 일이다.
- 03 (나)에 따르면 발표 내용으로 '친구들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다루기로 하였다. 하지만 '세대별 스트레스 양상의 차이점'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발표 개요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04 ㉡는 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한 자료이므로, 청소년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이라는 발표 주제와는 관련이 없다.
- 05 발표 내용에 적절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며, 청중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 06 (나)에서 지현이가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자.'라고 말한 내용을 통해 개요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은 '스트레스가 청소년에

게 미치는 영향임을 알 수 있다.

- 07 발표의 도입 단계에서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친구들의 경험을 소개하면 청중이 발표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 08 발표에 사용할 매체 자료를 고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체 자료가 발표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09 (가), (나)는 발표의 도입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발표자를 소개하고, 발표 배경 및 주제, 목적 등을 밝히며, 이후 이어질 발표 순서를 안내한다. 발표자가 참고한 자료의 출처는 인용한 부분에서 밝히거나 별도로 제시하면 된다.
- 10 (가)를 고려할 때, 이 발표에서는 예상 청중인 반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상황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1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자료를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 12 발표자가 청중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청중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청중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 13 (라)에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다고 답한 학생도 15명이나 되었는데요.'라고 하였고, (마)에서 '학업 문제가 45명으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15명은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다고 답한 학생일 뿐, 이들이 모두 학업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 14 발표자가 청중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는 부분은 나타나지만, 청중들의 대답에 따라 발표 내용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 15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것은 준언어적 표현이다. 발표할 때 준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 16 (나)에서 고민이나 감정을 친구나 가족, 선생님과 같은 주변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해결책을 찾거나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17 (다)에서 '다양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운동을 한 번만 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68~69

- 핵심개념 1 한자, 한자, 한자, 백성, 세종 대왕, 훈민정음
- 핵심개념 2 상형, 발음 기관, 혀뿌리, 혀끝, 입술, 이, 목구멍, 가획, 세기, 획, 병서, 가로
- 핵심개념 3 상형, 자연, 하늘, 땅, 사람, 합성, \, \
- 핵심개념 4 적음, 기본자, 발음, 소리값, 음절, 모아쓰기
- 핵심개념 5 편리성, 알파벳, 발음, 합성, 가획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70~73

- 01 ③ 02 ⑤ 03 ③ 04 ② 05 가획 06 ③ 07 ⑤
- 08 ② 09 ⑤ 10 ㉠: ㉠, ㉡: ㉡, ㉢: ㉢ 11 ④ 12 꿈
- 13 ③ 14 ② 15 ④ 16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면 발음도 비슷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 ① 18 ③
- 19 5, 3, 체계적 20 ③ 21 ② 22 ④ 23 ⑤ 24 '획 추가' 자판을 눌러 자음 기본자에 획을 추가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든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25 ④

- 01 이 대화는 한글이 창제되기 전 우리 조상들이 문자를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과 세종 대왕이 이를 알고 글자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중국의 한자를 빌려 썼는데,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 02 (라)에서 세종 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백성들이 글자를 쉽게 익히고 편하게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한 것이다.
- 03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ㄷ'은 이 모양을,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04 한글의 자음 기본자 'ㄱ, ㄴ, ㄷ, ㄱ, ㅇ'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관찰하여 그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 05 <보기>의 자음자들은 모두 자음 기본자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이다.
- 06 <보기>는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따른 것으로, ㉠에 들어갈 글자는 'ㅍ'이다. 'ㅃ'은 이미 만든 글자인 'ㅂ'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병서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 07 <보기>의 자음자들은 이미 만들어진 자음자를 옆으로 나란히 써서 자음자를 만드는 병서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 08 <보기>는 한글 자음자를 만든 원리에 따라 '㉠(상형), ㉡(가획), ㉢(병서)'로 구분한 표로, 소리의 특성이 자

음자의 모양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㉓는 소리의 강약에 따라 자음 기본자와 가획자를 결합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㉔에 획을 더한 ㉕의 소리가 조금 더 세며, 한글 창제 당시에 쓰였던 ‘ㅎ(여린 하음)’과 ‘ㅎ(쌍하음)’은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다.

- 09 모음 기본자 중 ‘ㆍ(아래아)’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 10 모음 기본자인 ‘ㅡ, ㅣ’에 ‘ㆍ’를 한 번 합하면 ‘ㅑ, ㅓ, ㅕ, ㅗ, ㅛ’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다시 ‘ㆍ’를 한 번 더 합하면 ‘ㅕ, ㅛ, ㅜ, ㅠ’를 만들 수 있다.
- 11 <보기>는 모음자 ‘ㅑ, ㅓ, ㅕ, ㅗ, ㅛ’를 만드는 원리이며, ‘충녕 대군’의 ‘녕’에 이 원리로 만들어진 모음자 ‘ㅑ’가 사용되었다.
- 12 <보기>의 초성에 해당하는 자음자는 ‘ㄴ’이고, 중성에 해당하는 모음자는 ‘ㅑ’이고, 종성에 해당하는 자음자는 ‘ㅁ’이다. 따라서 이를 모두 조합하면 ‘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다.
- 13 ‘ㅑ, ㅓ, ㅕ, ㅗ, ㅛ’는 모음 기본자 ‘ㅡ, ㅣ’에 ‘ㆍ(아래아)’를 한 번 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이를 통해 모음 기본자끼리 합하면 다른 모음자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음 모음자(ㄱ, ㄴ, ㄹ, ㅁ, ㅂ, ㅅ, ㅇ)와 모음 기본자(ㅏ, ㅑ, ㅓ, ㅕ, ㅗ, ㅛ)는 다른 글자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되며, 공통적으로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다.
- 14 (가)에서 한글은 단순하고 체계적인 문자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 15 ‘ㅑ’는 같은 발음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ㄱ’을 옆으로 나란히 붙여서 만든 자음자이다.
- 16 (나)에서 ‘한글은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이를 확장하여 다른 글자를 만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면 소리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7 (다)에서 한글의 ‘ㅇ’는 항상 [ㅇ]로 발음한다는 내용과 <보기>를 통해 한글은 영어 알파벳과 달리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릿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8 한글의 자음자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서 글자 모양이 비슷하면 발음도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쉽게 배울 수 있다.
- 19 한글은 적은 수의 기본자를 가지고 다른 글자를 만든 체계적인 문자이다.
- 20 ㉑은 음절 단위로 글자를 모아쓴 것이다. 모음자를 중심으로 하여 음절 단위로 모아쓰면 독자가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으며, 단어의 활용이 많은 우리글에서 어근이나 어간을 찾아내기 쉽다.
- 21 한글은 입력하려는 글자를 컴퓨터 자판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어서 입력이 쉽고 빠르다. 따라서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다른 문자보다 경제적 효과가 큰 글자라고 할 수 있다.

- 22 왼손은 자음자를, 오른손은 모음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컴퓨터 자판을 번갈아가며 입력하는 것은 한글의 경우이다.
- 23 제시된 휴대 전화 자판에는 모음 기본자를 조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합성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이 휴대 전화 자판을 이용하여 ‘ㅑ’를 입력하려면 ‘ㅣ’ 자판을 누른 뒤에 ‘ㆍ’를 누르면 된다.
- 24 가획의 원리는 자음 기본자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여 자음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 25 한글의 자음자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서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면 발음도 비슷하다. 또한 한글은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며,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쓴다. 따라서 한글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배우기가 쉬우며, 의미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단어의 어근이나 어간을 찾아내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pp. 74~79

대단원 최종실전 1회

01 ㉓ 02 ㉑ 03 ㉔ 04 ㉔ 05 나, 나 의 청소년 비만 문제는 발표 주제인 ‘청소년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06 ㉔ 07 ㉓ 08 ㉔, ㉔는 ㉔에 비해 내용이 한눈에 들어와 자료가 전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09 ㉔ 10 ㉔ 11 ㉓ 12 준언어적 표현: ㉑ / 비언어적 표현: ㉑, ㉑, ㉑ 13 ㉑ 14 ㉑ 15 ㉑ 16 발표 내용과 관련된 명언을 인용함으로써 발표 주제를 강조하고 발표를 인상 깊게 마무리하기 위해서이다. 17 ㉓ 18 한글, 쉽게 19 ㉓ 20 ㉔ 21 하늘, 땅, 사람, 한글의 모음 기본자는 자연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에 의해 만들었다. 22 ㅑ, ㅓ, ㅕ, ㅗ, ㅛ, ㅠ 23 ㉑ 24 ㉓ 25 ㉓ 26 ㉑ 27 ㉑

- 01 (가)는 발표 계획하기 과정으로 예상 청중의 관심사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표 주제와 목적을 정해야 한다. 매체 자료는 (다)의 발표 내용 구성하기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 02 ‘반 친구들이 발표를 듣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영희의 말을 통해 발표의 목적을 알 수 있다.
- 03 이 발표의 주제는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과 관리 방법이다. 따라서 연령별 스트레스 발생 원인의 차이점은 발표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 04 지아네 모듬이 조사한 자료 중 라의 ‘청소년 스트레

스, 대화가 해답이다'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 05** 발표할 때는 조사한 정보들을 모두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발표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발표의 주제를 포함하여 제시된 형식에 맞게 이유를 썼을 때	5
발표의 주제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형식에 맞게 이유를 쓰지 않았을 때	2

- 06** 발표의 정리 단계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청자에게 당부의 말을 하면 된다. 발표 동기를 제시하는 것은 발표의 도입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07** <보기>의 발표 개요에서 전개 단계를 보면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와 원인을 발표한 후에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시됨을 알 수 있다.
- 08** 청소년 스트레스 실태와 관련된 조사 자료를 보여 주기에는 줄글인 ㉔보다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제시한 ㉕가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㉔, ㉕ 중 더 적절한 자료의 기호와 이유를 알맞게 썼을 때	5
㉔, ㉕ 중 더 적절한 자료의 기호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만 썼을 때	2

- 09** (라)를 통해 설문 조사에 참여한 100여 명의 학생 중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발표자가 청중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모르는 내용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함이다.
- 11** ㉓는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자료이므로 (마)에 활용하기에 적절하며, ㉔는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에 대한 자료이므로 (라)에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 12** 준언어적 표현은 말의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 억양, 어조 등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이루어지는 음성적 효과이며, 비언어적 표현은 시선, 자세, 몸짓, 손짓, 표정 등 동작 언어이다.
- 13** (가)에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면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발표에서는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 14** <보기>에서 미래는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 부족과 탈모를 겪는 등 심각한 상태이므로, (나)에서 제시한 '위(Wee)클래스'와 같은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15** 발표자를 소개하는 것은 발표의 정리 부분이 아니라, 도입 부분에서 다룰 내용이다.

- 16**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당부의 말을 해야 하는 정리 단계에서 [A]와 같은 명언을 인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강조하여 청중의 인상에 강하게 남길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A]와 같은 말을 가리키는 용어를 포함하여 썼을 때	5
[A]와 같은 말을 가리키는 용어를 포함하여 쓰지 않았을 때	2

- 17** 이 대화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상황으로,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를 익히기가 쉽지 않아 불편한 언어생활을 하고 있었다.
- 18** 이 대화에는 세종 대왕이 한자를 몰라 곤란한 상황을 겪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편히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한 상황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한글에 담긴 세종 대왕의 애민 정신을 알 수 있다.
- 19**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ㄱ, ㄴ, ㄷ, ㄱ, ㅅ, ㅇ'의 다섯 글자이다. 이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ㅋ, ㆁ, ㅌ, ㅍ, ㅊ, ㅍ, ㅆ, ㅎ'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
- 20** 'ㅃ'은 이미 만든 자음자 'ㅂ'을 옆으로 나란히 써서 만드는 병서의 원리로 만든 자음자이다.
- 21** 한글의 모음 기본자인 'ㆍ'는 양(陽)인 하늘(天)을 본떠 만들고, 'ㅡ'는 음(陰)인 땅(地)을 본떠 만들었으며 'ㅣ'는 음과 양의 중간자인 인간(人)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포괄하는 상위어를 포함하여 썼을 때	5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지 않았거나, 빈칸에 들어갈 말을 포괄하는 상위어를 포함하여 쓰지 않았을 때	2

- 22** 모음 기본자인 'ㅡ, ㅣ'에 'ㆍ'를 한 번 합하여 'ㅑ, ㅓ, ㅕ, ㅗ'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다시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ㅛ, ㅜ, ㅠ, ㅠ'를 만들 수 있다.
- 23** (가)에서 한자의 수는 5만 개 이상이고, 일본어의 수는 100여 개라고 하였으므로 한자의 수가 일본어의 수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 24** <보기>에서 한글 'ㅏ'는 항상 하나의 소릿값을 가지는 반면, 영어 알파벳 'a'는 여러 가지 소릿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㉔이다.
- 25**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모음 기본자는 '자연'을 본떠 만들었음 뿐, 중국의 한자를 본떠 만든

글자가 아니다.

- 26** <보기>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로 늘어놓는 풀어 쓰기 방식이다. 이와 같이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쓰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장이 길어져 읽는 속도가 느려진다.
- 27** 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다른 문자에 비해서 자판 입력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한글의 컴퓨터 업무 능력이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가나보다 일곱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대단원 **최종실전 2회**

pp. 80~86

01 ③ **02** ⑤ **03** ⑤ **04**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05** ③ **06** ① **07** ③ **08** 학업 문제라고 볼 수 있어. **09** ⑤ **10** ⑤ **11** ④ **12** ① **13** 건전한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습 /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소년의 모습 **14** ④ **15** ⑤ **16** ③, ⑤ **17** ③ **18** ③ **19** ㉠: 허뿌리, ㉡: 윗잇몸, ㉢: 목구멍 **20** ③ **21** ②, ④ **22** ② **23** ④ **24** ㉠: ㅏ, ㉡: ㅑ, ㉢: ㅓ, ㉣: ㅕ, ㉤: ㅗ **25** ③ **26** ⑤ **27** ② **28** ③ **29** 글자의 모양과 발음에 연관이 없는 영어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발음의 특성을 반영하여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하면 발음도 비슷하다. **30** ① **31** ② **32** 음절, 모아쓰기, 풀어쓰기, ㉠은 ㉡에 비해 독자가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다.(㉠은 ㉡에 비해 단어의 활용에서 어근 또는 어간을 찾아내기가 쉽다.) **33** ④

- 01** (가)에서 지현이의 말을 통해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다루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영혁이의 말을 통해 스트레스의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 전달이 발표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지아네 모듬의 발표 주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이 적절하다.
- 02** 자료를 조사할 때에는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않아야 한다.
- 03** 청중의 관심을 끌 만한 자료는 도입이나 전개 단계에서 제시해야 한다.
- 04** 발표할 때 매체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발표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청중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또한 청중이 발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다)의 대화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매체 자료를 활용했을 때의 효과 두 가지를 각각 한 문장으로 썼을 때	3
(다)의 대화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지 않았거나, 매체 자료를 활용했을 때의 효과를 한 가지만 썼을 때	1

- 05**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것이다. ㉠은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 06** 지아네 모듬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이유는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반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 07** (라)의 설문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계층 간 비교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소년이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계층 인지는 알 수 없다.
- 08** (마)에서 '학업 문제가 45명으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내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학업 문제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09** 발표의 흐름으로 볼 때, 청중에게 당부하는 <보기>의 내용은 발표의 정리 부분에 해당하므로, (마)의 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10** (가)에서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적·심리적 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적절하게 관리하면 우리 삶에 활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보기>는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한 시각 자료이다.
- 11** ㉠은 목소리를 높여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것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청중으로 하여금 발표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12** 이 글에서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수면을 충분히 취하라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13** (라)의 '영상 속 친구들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에서는 취미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의 동영상 내용을 문장 형식에 맞게 썼을 때	3
㉡의 동영상 내용을 제시했으나 문장 형식에 맞게 쓰지 않았을 때	1

- 14** 청중이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매체인지는 매체 자료를 평가하는 기준과는 관련이 없다.
- 15** 우리글이 존재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한자를 빌려

사용한 것일 뿐, 일반 백성들이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 16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는 세종 대왕의 말을 통해 한글은 모든 백성이 쉽게 익혀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층민들은 자신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한글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보기>의 내용을 통해 당시 하층민들이 한글을 익히는 데 적극적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17 모음 기본자는 ‘ㆍ, ㅡ, ㅣ’ 세 글자이며, 이 중에서 ‘ㆍ’는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이다.
- 18 <보기>의 글자들은 자음 기본자로, 공통적으로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다.
- 19 자음 기본자 중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20 ㉠에 들어갈 글자는 자음 기본자 ‘ㅅ’에 획을 더해서 만든 ‘ㅆ’이다.
- 21 <보기>는 병서의 원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에는 ‘ㄱ’을 가로로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인 ‘ㄲ’이 사용되었으며, ㉣에는 ‘ㄷ’을 가로로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인 ‘ㄸ’이 사용되었다.
- 22 ‘ㆍ’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모음 기본자이다.
- 23 모음 기본자에 ‘ㆍ’를 한 번 합하여 만든 모음자는 ‘ㅏ, ㅑ, ㅓ, ㅕ’이고, 여기에 다시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모음자는 ‘ㅘ, ㅙ, ㅛ, ㅜ’이다. 따라서 <보기>를 모두 충족하는 글자를 포함한 단어는 ‘우유’이다.
- 24 ㉠~㉣은 모음 기본자 ‘ㅡ, ㅣ’에 ‘ㆍ’를 한 번 합하여 만든 모음자이고, ㉡과 ㉣은 ㉠~㉣에서 만들어진 모음자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모음자이다.
- 25 (라)에서 한글의 컴퓨터 업무 능력은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가나보다 일곱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한글이 컴퓨터로 업무를 할 때 비효율적인 글자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6 모음자를 만드는 제자 원리는 상형과 합성이며, 가획은 자음자를 만드는 원리이다.
- 27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로 발음된다고 해서 알파벳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28 ㉢은 이 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니며, 한글의 우수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 29 한글의 자음자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글자

의 모양이 비슷하면 발음도 비슷하다. 즉, 글자의 모양과 발음에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영어 알파벳은 소리가 비슷하더라도 글자 모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발음과 연관성이 없다.

채점 기준	배점
한글의 모양과 발음의 관계를 영어 알파벳과 비교하여 썼을 때	4
한글의 모양과 발음의 관계를 영어의 알파벳과 비교하여 쓰지 않았을 때	2

- 30 한글은 발음의 특성이 글자에 반영되어, 기본자를 알면 비슷하게 생긴 글자를 발음하기가 쉽다.
- 31 컴퓨터 자판에서 한글을 입력할 때, 왼손은 자음자를, 오른손은 모음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주로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다.
- 32 자음자와 모음자를 ㉠과 같이 가로로 풀어쓰면 무슨 말인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장이 길어져 읽는 속도가 느려진다. 반면 ㉡과 같이 모음자를 중심으로 음절 단위로 모아쓰면 독자가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으며, 단어의 활용이 많은 우리글에서 어근 또는 어간을 찾아내기가 쉽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고, 어떤 방식이 우리글에 더 적합한지 형식에 맞게 썼을 때	4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지 않았거나, 어떤 방식이 우리글에 더 적합한지 형식에 맞게 쓰지 않았을 때	2

- 33 ㉦에서는 모음 기본자 ‘ㆍ, ㅡ, ㅣ’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든 합성의 원리를 적용하였고, ㉣에서는 ‘획 추가’ 자판을 이용해 자음 기본자에 획을 추가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든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4 / 세상을 보는 눈

(1) 귀뚜라미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88-89

- 핵심개념 1 전달, 대리인, 분위기
- 핵심개념 2 위치, 상황
- 핵심개념 3 자세, 생각, 말투
- 핵심개념 4 귀뚜라미, 여름, 울음, 노래
- 핵심개념 5 의인법, 귀뚜라미, 의성어
- 핵심개념 6 가지, 콘크리트, 매미
- 핵심개념 7 존재, 가슴, 소망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90-91

- 01 ① 02 ⑤ 03 노래 04 ⑤ 05 ④ 06 ⑤ 07 의인법
08 ③ 09 ① 10 (나)의 화자는 진이가 전학을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11 ①

- 01 ‘~처럼’, ‘~같이’ 등의 연결어와 결합하여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 직유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02 이 시의 화자는 귀뚜라미로 작품 안에 ‘나’로 등장하여 시적 상황과 정서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 03 이 시의 화자인 귀뚜라미는 자신의 울음이 아직은 ‘노래’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될 수 있을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 04 지금은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귀뚜라미의 울음이 아직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가 되지 못한 것이다.
- 05 이 시에서는 귀뚜라미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울음을 ‘타전 소리’에 비유하였다.
- 06 화자인 귀뚜라미는 ‘밭길에 놀려’ 울음을 운다고 했으므로, ‘밭길’은 차갑고 삭막한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연약한 화자에게 가해지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07 [A]에서는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온다며 사람이 아닌 ‘맑은 가을’을 마치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08 (가)에서는 역설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자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참 좋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 09 (가)에서는 길을 잃어버렸다가 어머니를 다시 만난 화자가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 화자는 작품 속에 ‘나’로 직접 등장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10 진이의 눈 속에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과 진이가 전학을 간다는 내용을 통해 (나)의 화자는 진이가 전학 가는 모습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나)에서는 화자가 시에 직접 등장하지 않은 채 시적 대상인 진이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심리를 알기 어렵다. 반면 <보기>는 화자가 전학을 가는 ‘나’로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아쉬워서 눈물이 글썽글썽’에 ‘나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 동백꽃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92-94

- 핵심개념 1 이야기, 분위기
- 핵심개념 2 서술자, 위치
- 핵심개념 3 자신, 내면 심리, 관찰자, 전지적, 상상력, 관찰
- 핵심개념 4 직접적, 행동
- 핵심개념 5 점순이 / 주인공
- 핵심개념 6 마음, 눈치
- 핵심개념 7 감자, 고추장, 닭싸움 / 순수, 웃음
- 핵심개념 8 애정, 갈등, 닭싸움, 사랑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95-99

- 01 ④ 02 ③ 03 감자 04 ⑤ 05 점순이가 달아난 것은 ‘나’에게 호의를 거절당하여 무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06 ④
07 ① 08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인다. 09 ‘나’가 ㉠처럼 행동한 까닭은 고추장을 먹였는데도 ‘나’의 수탉이 공격을 당하자 실망했기 때문이다. 10 ⑤ 11 ② 12 동백꽃 13 ③
14 ③ 15 ⑤ 16 ① 17 ④

- 01 이 글은 토속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느낌을 주고, 이야기가 현재에서 과거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독백 형식으로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나’와 점순이 사이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02 ‘나’가 점순이가 건넨 감자를 거절한 까닭은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였기 때문으로, 어머니의 당부 때문에 감자를 거절한 것이 아니다.
- 03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주며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였는데 ‘나’가 받기를 거절하여 점순이와 갈등하게 된

것이다.

- 04 감자를 내미는 점순이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무뚝뚝하게 대꾸하는 '나'의 모습에서 어수룩하고 통명스러운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05 점순이는 호의를 거절당하여 무안하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가 야속하여 달아난 것이다.
- 06 '나'가 점순이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만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치거나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07 '닭싸움'은 호의를 거절당한 점순이의 분노를 해소하는 수단이자, 점순이가 '나'의 감정을 자극하여 관심을 끄는 방법이다. '닭싸움'으로 인해 점순이에 대한 '나'의 반감이 커졌으며 '나'와 점순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 08 '나'는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여 점순이네 수탉과 싸움을 붙였다.
- 09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인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탉이 점순이의 수탉에게 당하자 실망하여 기동처럼 묵묵히 서 있게 된 것이다.
- 10 '나'는 닭싸움을 시켜 놓고 천연덕스레 호드기를 붙고 있는 점순이를 발견하자 약이 오르고 화가 나서 눈물이 쏟아진 것이다.
- 11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나'가 감자를 거절하여 자신의 호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순이가 ㉠과 같이 말한 의도는 '나'가 다음부터 자신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 12 이 소설에서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며, 그 사랑을 순수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하는 소재이다.
- 13 이 글은 어수룩한 성격의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당사자인 '나'만 모르는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해학적이고 순수하게 보여 주고 있다.
- 14 이 글은 한 사건을 바라보는 두 서술자의 시점을 교차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인물의 갈등과 대응 방식을 각각 서술하고 있다.
- 15 0의 '나'는 장원을 받은 그림을 실제로 그린 사람이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더욱 최선을 다했다.
- 16 이 글에서 1의 '나'가 저지른 실수는 자신의 그림에 0의 '나'의 출품 번호인 124를 적어 낸 것이다.
- 17 이 글은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을 공간의 변화에 따라 서술하지 않았다.

01 ⑤ 02 ② 03 ⑤ 04 ② 05 ③ 06 ② 07 ②, ⑤
 08 껌데기, 알맹이 09 ④ 10 <보기>는 화자를 전학을 가는 당사자인 진이로 설정하여 친구와 헤어지는 화자의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을 직접 드러냈다. 11 ③ 12 ② 13 ④ 14 점순이가 ㉠처럼 행동한 이유는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건넨 감자를 '나'가 거절하여 화가 났기 때문이다. 15 ② 16 ⑤ 17 ⑤ 18 우리 수탉을 점순이네 수탉과의 닭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19 ④ 20 ② 21 ⑤ 22 ⑤ 23 독자들은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당사자인 '나'만 모르는 어수룩한 모습을 통해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한다. 24 ④ 25 1의 '나'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이유는 실수를 바로잡는 일이 귀찮고, 그 결과로 한 아이에게 좌절감을 안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6 ① 27 ③ 28 이 글은 서술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양쪽의 생각을 모두 알 수 있는데, 서술자가 0의 '나' 한 명이 된다면 독자들은 1의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 01 (나)와 (다) 모두 화자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다.
- 02 '풀숲'과 '땅 밑'은 모두 가을이 내려오는 장소로 대조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 03 '귀뚜라미'는 가을에는 자신의 울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힘든 삶을 묵묵히 견디고 있다. 이와 가장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⑤번이다.
- 04 (가)에서 화자인 '나(귀뚜라미)'는 가을이 되어 자신의 울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05 [A]는 화자를 귀뚜라미로 의인화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처지가 허구적이고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를 <보기>처럼 화자를 사람으로 바꾸면, 특정 상황에 처한 화자의 처지가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 06 (나)에서는 '어머니 ~ 좋다.'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와 '어머니'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7 (나)에서는 화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하여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찾으러 가거나, 길을 잃고 파출소에 앉아 울고 있는 등의 상황을 마음에 와닿게 전달하였다. 또한 이런 설정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으며 어머니에게 순수하고 온전한 애정을 가진 어린 화자가 꾸지람을 듣는 상황조차 밝고 경쾌하게 표현하였다.
- 08 '나'가 엄마에게 자신이 없으면 순전히 '껌데기'일 것이냐고 묻자 어머니가 '나'를 '알맹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대조적인 의미의 소재를 사용하여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09 이 시는 화자가 전학을 가는 진이를 바라보는 내용으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고인 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화자를 통해 친구가 전학을 가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 (다)는 전학을 가는 진이를 바라보는 이를 화자로 설정하여 진이의 감정이 직접 드러나지 않았는데, <보기>는 진이를 화자로 설정하여 전학을 가는 상황에서 느끼는 진이의 마음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의 화자와 바뀐 화자로 인한 정서 표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춰 썼을 때	5
바뀐 화자로 인한 정서 표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춰 쓰지 않았을 때	2

11 '나'를 전'에 대한 내용을 통해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자신이 마음을 담아 내민 감자를 '나'가 무시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에서 '나'는 이런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으므로 눈치가 없고 어수룩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2 점순이는 '나'에게 애정의 표시인 감자를 건네기 위해 말을 걸고 있다. 따라서 점순이는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서 ㉡처럼 행동한 것이다.

13 <보기>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가 신과 같이 점순이와 만식이의 마음을 다 알고 전달해 주고 있다.

14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자신이 애정의 표시로 건넨 감자를 '나'가 거절하여 무안하고 화가 났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감자'라는 소재를 들어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거절한 사건을 적절하게 서술했을 때	4
점순이가 '나'에게 가진 감정은 서술했지만 '감자'라는 소재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사건을 정확히 서술하지 못했을 때	2

15 이 글에는 '나'를 괴롭히는 점순이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 사이의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16 '나'가 소리를 뻑 질렀음에도 놀라지 않는 모습으로 보아 점순이가 의도적으로 '나'의 앞에서 '나'의 닭을 괴롭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점순이가 '나'의 닭을 괴롭히는 모습을 '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7 ㉢에서 '나'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까지 욕을 하며 괴롭히는 점순이에게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릴 만큼 분함을 느끼고 있다.

18 '나'는 씹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뻥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인 것이다.

19 이 글에서 어린 소년과 소녀의 말투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과 무게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비속어를 사용하여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실감 나게 느껴지도록 하였으며,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독백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20 ㉠은 점순이에 대한 '나'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화를 참지 못하고 점순이네 닭을 죽인 일이다. 그런데 점순이가 닭이 죽은 일을 비밀로 해 주기로 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

21 '나'는 마름인 점순이네 닭을 죽인 일로 땅이 떨어지고 집에서 내쫓기는 등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걱정이 되어 온 것이다.

22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의 화해와 사랑의 시작을 의미하는 소재로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23 점순이가 하는 행동의 의도를 모르는 어수룩한 성격의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독자는 알지만 '나'는 모르는 상황들로 인해 웃음이 유발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나'의 어수룩한 성격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서술했을 때	4
'나'의 어수룩한 성격은 썼지만 서술자를 '나'로 설정하여 얻는 효과를 쓰지 못했을 때	2

24 이 글에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해학적인 재미를 주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5 1의 '나'는 그 아이의 너절한 인상이 실수를 바로잡는 게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고 하였고, 그 결과로 한 아이가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씻지 못할 좌절감이 느껴졌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1의 '나'가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모두 드러나도록 썼을 때	4
1의 '나'가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이유를 한 가지만 썼을 때	2

26 ㉠에서 0의 '나'는 장원을 받은 자신의 그림을 보러 간 것이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므로 장원을 받은 그림에 대한 부러움이 느껴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27 이 글에서 0의 '나'는 그림 대회에서 장원을 받은 그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28 이 글은 두 명의 서술자가 교차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한 두 서술자의 심리를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서술자

를 한 사람만 설정한다면, 다른 인물의 생각과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이 글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특징을 바탕으로 서술자가 한 명일 때 독자들이 느낄 심리를 서술했을 때	5
이 글의 서술자 특징은 서술하였지만 서술자가 한 명일 때 달라지는 점을 서술하지 못했을 때	2

대단원 **최종실전 2회**

pp. 106~112

01 ④ 02 가을이 오면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03 ③ 04 ② 05 ② 06 ③ 07 ① 08 ③ 09 ② 10 ⑤ 11 ④ 12 ③ 13 ③ 14 ① 15 ④ 16 ① 17 ④ 18 ④ 19 ② 20 ③ 21 “뭐, 이 자식애 누 집 닭인데?” 22 ⑤ 23 ④ 24 ④ 25 ③ 26 0의 ‘나’에게는 떨어지고 없는 회색 크레파스가 그림에 칠해져 있었다. 참가 번호를 쓴 글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27 0의 ‘나’가 ㉠처럼 행동한 까닭은 다른 사람의 상을 대신 받았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이다. 28 ② 29 ④ 30 ④

01 (가)의 화자는 ‘귀뚜라미’이고, (나)의 화자는 시에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진이가 전학을 가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02 (가)의 화자는 맑은 가을이 오면 자신의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가)의 화자가 기다리는 계절과 ‘노래’의 의미를 포함하여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썼을 때	3
(가)의 화자가 기다리는 계절은 밝혔지만 ‘노래’의 의미를 포함하지 못했을 때	1

03 ‘나’는 지하도의 콘크리트 벽 좁은 틈이라는 숨 막히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살아 있음을 간절히 알리고자 울음소리를 내고 있다.

04 ㉠에는 사람이 아닌 것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인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a와 b이다. c는 역설 표현이, d는 반어 표현이 사용되었다.

05 이 시에는 ‘전학’이라는 단어와 ‘눈물이 글썽글썽’, ‘진이의 눈 속에 / 무지개가 떴다’라는 표현을 통해 전학을 가는 진이의 슬픔이 드러나고 있다.

06 이 글은 현실 세계에 있음직한 일을 글쓴이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꾸며 낸 소설이다.

07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08 이 글은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늘 - 나흘 전 - 사흘 전’의 순서로 서술되어 있다. 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나’가 점순이의 감자를 거절한 ‘나흘 전’의 사건이 가장 처음이고, 점순이가 ‘나’가 보는 앞에서 ‘나’의 집 씨암탉을 패 준 것이 그 다음날인 ‘사흘 전’, 그리고 나무를 하러 가려던 ‘나’가 닭싸움을 보게 된 것이 ‘오늘’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다.

09 ㉠은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 표현 수단으로, ‘나’가 이를 거절하면서 점순이와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10 ‘나’는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여 점순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통명스럽게 감자를 거절하고 있다.

11 점순이는 애정을 담아 건넨 감자를 ‘나’가 거절하자 무안하고 부끄러우며 ‘나’가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과 같은 점순이의 행동으로 볼 때, 점순이가 평소 감자를 먹지 못하는 ‘나’에 대해 안쓰러움을 느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동네 어른들의 짓궂은 농담도 천연덕스럽게 받아치는 점순이의 말을 통해 평소 점순이가 넉살 좋고 활달한 성격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3 점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감자를 거절한 ‘나’에게 화가 나 그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해 ‘나’를 괴롭힌다. 한편 그러한 점순이의 행동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14 점순네가 ‘나’의 집에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나’가 이러한 점순네의 호의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5 점순이가 ‘나’ 보란 듯이 또다시 닭싸움을 시키는 바람에 ‘나’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나’는 결국 점순이네 닭을 죽이게 된다. 그러나 점순이가 울음을 터뜨린 ‘나’를 달래며 닭을 죽인 일을 비밀로 해 주기로 하면서 둘의 갈등이 해소된다.

16 점순이는 ‘나’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지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순박한 농촌 처녀이다.

17 ㉠에서 ‘나’는 닭싸움을 붙여 놓고 천연덕스레 호드기를 부는 점순이로 인해 약이 올라 분노의 감정 때문에 우는 것이고, ㉡에서 ‘나’는 화김에 점순이의 닭을 죽이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우는 것이다.

18 ㉢에서 점순이는 다음부터 자신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고 있지만 ‘나’는 이러한 점순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와 같이 ‘그래라

고 대답한 것이다.

- 19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인 '나'는 닭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나'의 닭이 공격에 성공하자 통쾌해하지만, 곧 다시 공격을 받아 찢끔 못 하고 굶는 모습에 실망한다.
- 20 '나'에 대한 점순이의 분노 표현의 수단이자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은 '닭싸움'이며, 점순이와 '나'의 사랑을 순수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하는 소재는 '동백꽃'이다.
- 21 점순이네 닭을 죽이고도 "그럼 어때?"라고 말하던 '나'는 점순이가 "뭘, 이 자식이! 누 집 닭인데?"라고 말하자 점순이네가 마름집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려워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 22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입장에서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수룩하게 대응하는 '나'의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이다.
- 23 이 글은 두 명의 서술자가 교차되며 하나의 사건을 각각 자신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야기의 흐름이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24 0의 '나'가 가진 오래된 크레파스에는 회색이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 25 미국에서 공부하며 학생 회장을 지낸 사람은 1의 '나'의 큰아이이다.
- 26 0의 '나'는 자기에게는 떨어지고 없는 회색 크레파스가 히말라야시다 가지 끝에 칠해져 있다는 점과, 참가 번호의 글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통해 장원작이 자신의 그림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다.
- 27 ㉠에서 0의 '나'가 지나친 여자아이는 1의 '나'이다. 0의 '나'는 1의 '나'와 마주친 순간, 자신이 상을 대신 받았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나'가 여자아이를 보고 느꼈을 감정과 그렇게 느낀 원인이 모두 드러나도록 썼을 때	4
'나'가 여자아이를 보고 느꼈을 감정과 원인 중 한 가지를 바르게 서술하지 못했을 때	2

- 28 이 글에서 '그 결과가 오늘의 나(=유명한 화가)일까.', '누군가 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생각의 결과'라고 하였다. 0의 '나'는 그림 사건 이후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가 지금의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0의 '나'가 자신의 비밀을 누군가 알게 될까 봐 불안해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9 1의 '나'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장원을 놓친 아이이고, 0의 '나'는 다른 사람의 그림으로 대신 장원을 받게 된 아이이다. 0의 '나'는 자신이 주 선생님의 품에 안겨 울지만 않았더라도 선생님을 찾아가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30 <보기>는 1인칭 주인공의 시점으로 서술된 이야기를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시점이 달라지면서 서술자에 의해 인물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이를 추측하는 긴장감이 사라지고, 인물과 독자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다.

MEMO

MEMO